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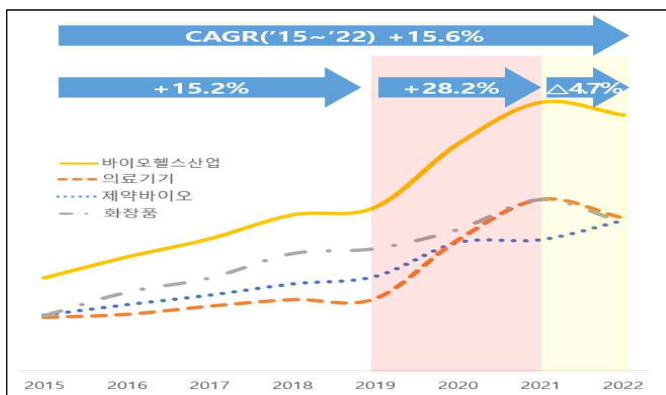
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

1 '22년 수출 동향 및 '23년 전망

① '22년 수출 동향

- 코로나19 시기 바이오헬스 산업은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*, '22년 242억 달러로 다소 감소($\Delta 4.7\%$), 역대 두 번째 수출 규모 달성
* 19년 155억달러(10위) → '20년 215억달러(7위) → '21년 254억달러(7위) → '22년 242억달러(7위)
- '20년 이후 7위를 유지하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
- '22년 상반기에는 의약품, 의료기기 수출 증가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, '2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 엔데믹화에 따른 방역물품(체외진단용제품, 세정제 등) 해외 수요 축소로 수출 감소로 전환

< 코로나 전후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현황 >



구분	코로나 전후 연평균 수출액 증가율(%)			
	코로나 이전 (15~19)	코로나 확산기 (19~21)	코로나 완화기 (21~22)	전체 (15~22)
의약품	14.2	17.9	14.8	15.3
의료기기	7.8	54.2	$\Delta 11.0$	16.2
화장품	22.2	18.4	$\Delta 13.4$	15.3
전 체	15.2	28.2	$\Delta 4.7$	15.6

*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재가공

- (의약품) 바이오의약품(바이오시밀러) 및 코로나19 백신(CMO)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4.8% 증가해 수출액 81억 달러 달성

*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수출액(전년비) : '21년 39억 달러(6.4%) → '22년 46억 달러(17.3%)

- (의료기기) 팬데믹 동안 수요가 급증했던 체외진단용 제품 수출*이 코로나 19 안정화로 감소하면서 82억 달러 기록** (전년대비 $\Delta 11.0\%$)

* 체외진단기기 수출액(억달러) : ('19) 2.7 → ('20) 36.0 → ('21) 47.6 → ('22) 32.8

** 총 수출액(억달러) : ('19) 38.8 → ('20) 70.3 → ('21) 92.2 → ('22) 82.1

- (화장품)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('21년 점유율 53.2%)의 규제 강화('22~)* 및 애국소비(國潮 귀차오) 등으로 인해 수출 급감**

*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: (~'21) 위해가능 원료 및 신원료 → ('22~) 모든 원료

** 중국 수출(전년비) : '20년 38억달러 → '21년 49억달러(+28.2%) → '22년 36억 달러($\Delta 26.0\%$)

② '23년 수출 전망

○ 경제성장률 정체,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수출 여건은 어려워질 전망

- (경제성장률 하락) 우리나라(OECD기준, '23년 +1.6%) 경제성장률은 주요 선진국* 대비 높은 편이나,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하락 추세

* '23년 경제성장률(OECD, %) : (세계)2.6% (한국)1.6% (일본)1.4% (미국)1.5% (독일)0.3%

** 한국 경제성장률(OECD, %) : '21년 4.1% → '22년 2.7% → '23년 1.6%

- (대외 여건)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기조 및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규제 강화*, 코로나 안정세 등으로 수출 여건은 어려워질 전망

* (미국)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(NBBI, '22년 9월)

(유럽)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강화(MDR, '21년 5월 시행, 등급에 따라 '28년 말까지 유예)

(중국)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결과 제출 의무 단계적 강화('22년~'24년)

○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'23년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(의약품)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경쟁력*, 세계 1위 CMO 생산역량, 우수한 국산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** 등으로 수출 성장세 기대

* 22년 기준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점유율 1위, 미국은 2위(39개 중 9개), 특허 만료 3개 품목(국내 3개사) 글로벌 3상 완료, 마·유럽 허가 추진 중

** 국내 개발 의약품 21개 품목(바이오시밀러 포함) 美·EU 인허가 획득으로 선진국 시장 진입

- (의료기기) 체외진단기기 수요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나, 의료기관 기능 정상화에 따른 기존 주력품목의 수요 회복*,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으로 감소폭 완화 전망

* 초음파 영상진단기기(억달러) : ('19) 6.7 → ('20) 5.6 → ('21) 7.0 → ('22) 7.7

임플란트(억달러) : ('18) 3.3 → ('19) 4.0 → ('20) 3.8 → ('21) 5.7 → ('22) 7.1

<국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해외진출 성공 사례>

- (루닛社) 의료AI 최초 호주 국영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(루닛 인사이트 MMG) 단독 수주

- (코어라인소프트社) 유럽 5개국 2만 6,000명 대상 폐암검진프로젝트 솔루션 공급, 이탈리아 폐암검진 프로젝트 솔루션(에이뷰 LCS 플러스) 공급

- (화장품) 對중국 수출의 기저효과, 비중국 지역의 K-Beauty 선호도 증가 및 지역 채널 확장*으로 수출 증가 기대

* (미주) K-콘텐츠에 따른 한국산 제품 인지도 상승, (동남아) 한국 브랜드 직영매장 증가세, (중동) 한류 확대,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쇼핑(전자상거래) 가속화

목표

-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수출 활성화 및 새로운 시장 진출 견인

전략

- (의약품) 바이오의약품·혁신 신약 중심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수출 판로 개척
- (의료기기) 기존 주력분야 수출 활성화 및 디지털 의료기기의 신시장 진출 지원
- (화장품) 중국 규제 대응, 한류 중심의 시장 다변화

세부 추진방안

의약품

- ①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우위 선점
- ② 우수한 신약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
- ③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
- ④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 및 규제 대응 역량 제고
- ⑤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
의료기기

- ① 체외진단기기 수출 회복 및 성장동력 유지
- ② 주력 품목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
- ③ 해외 거점센터 확대 및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
- ④ 국산제품 신뢰성 확보 및 국제 공동연구·임상 지원
- ⑤ 혁신적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

화장품

- ① 중국 규제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
- ② 수출 경쟁력 확보 기반 조성
- ③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

거버넌스 및
제도개선

- ① 복지부-관련 협회 중심의 수출지원 협의체 운영
- ② 무역보험 우대

1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

- ◆ 글로벌 수요가 높은 **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**
- ◆ 혁신 신약의 글로벌 본격 진출 및 **고품질 국산의약품의 해외 판로 개척**

1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역량 강화로 글로벌 우위 선점

- (메가펀드 조성) 글로벌 임상시험 자금 조달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*
* '23년 5,000억원(상반기), '25년까지 1조원, 성과분석 토대로 향후 추가 펀드 추진
- (생산시설 확장)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등 국내 기업의 시설 투자* 가속화를 위한 인센티브** 방안 마련('23~)
* 삼성바이오로직스('23.2분기 4공장 완공, 초격차 위해 신규 건설 계획 중), 셀트리온('23.5월 3공장 준공)
* 범부처 협업을 통한 생산시설 인·허가 규제 완화, 보조금 지원 등
- (생산인력 양성) 바이오의약품 수출 확대 대응 및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생산인력 양성
* (K-NIBRT) '23~'24년 시범 운영 400명, '25년 공식 개소시 연 2천명 양성 / (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) '23년 250명, '25년 공식 개소시 연 2천명 양성 등

2 우수한 혁신 신약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

- (R&D 투자) 국가신약개발사업('21~'30, 22조원) 차질없는 지원(과기부·복지부·산업부),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및 AI·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강화
- (개방형 혁신)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, 해외 제약사 등과 기술협력 지원*, 해외 우수 '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'** 국내 유치 추진
* 후보물질 발굴(벤처) + 추가개발기술사업화(혁신기업) + 해외임상·생산공정 고도화 등(해외제약사)
** 스타트업 초기단계 혁신기술 발굴, 연구공간·실험장비 및 글로벌 기업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며 유망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기관
- (시장개척 지원) 국산 신약의 글로벌 허가(美 FDA 등)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 지원을 통해 혁신 신약 수출 확대
* 해외 인허가 등록, 실사 자문 등을 위한 「CMC 전략컨설팅」 지원(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)
** 국산 혁신 신약 5~6개 품목의 경우 국내외 인허가 획득 및 매출 성장 기대

③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

- (유통채널 구축) 중국·인도산 대비 우수한 품질의 국산 의약품 판로 확대를 위해 '미국헬스케어유통연합*'과 네트워크 구축 추진 ('23)
 - * (Healthcare Distribution Alliance) 美의약품 대표 유통업체(유통시장의 90% 차지)
- (조달시장 참여)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주관의 공공 조달시장*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, 기업 역량 강화, G2G 협의
 - * 주요 국제기구(WHO, UN 등)의 보건의료 국제입찰 시장 규모는 약 54억달러('20)
- (파트너 발굴) 'BIO KOREA' 개최(5월), 주요 제약박람회* 참가 지원, 수출사절단 파견 등으로 현지 파트너사 발굴 및 기술협력 촉진
 - * (기술거래) BIO US(6월, 미국), ASCO(6월, 미국), ESMO(10월, 스페인), BIO Europe(11월, 독일) 등 (제품수출) CPhI China(6월, 중국), CPhI SEA(7월, 태국), CPhI Worldwide(10월, 스페인) 등

④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(G2G) 및 규제 대응 역량 제고

- (美 행정명령^{229월} 대응)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 및 美측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정책·시장 동향 파악 및 협력방안 논의
 - * 각 부처의 평가보고서('23.3) 토대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(OSTP)에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('23.6) →의약품은 즉각적 공급망 변경이 어려워 단기 영향 제한적, 중견제 목적 고려시 긍정적 영향 예상
- (R2R 규제협력) GMP 상호인정 국가 확대(싱가포르), 인허가 절차 간소화*, WHO 우수규제기관* 등재(WLA, '23.上 예정)로 글로벌 규제 장벽 극복 (식약처)
 - * 한국제품 허가절차 간소화 국가(기준) : 에콰도르, 페루, 우즈베키스탄
- (글로벌 인허가 실무교육) 미 FDA·유럽 EMA 근무 경력자를 초빙, 인허가·임상 관련 해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실무 교육 제공(연 300명)

⑤ 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

- (수출 종합지원센터)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 및 컨설팅 제공
 - * 국가별 인허가·마케팅 컨설팅, 코트라·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지사 등 연계 현지 수출 지원
- 국내 및 현지 해외 제약전문가의 전문 컨설팅, 중소·벤처 제약기업 생산시설 고도화 지원, 글로벌 규제 및 산업동향 정보 제공 등
 - * 해외 제약전문가를 국내 상임 컨설턴트로 초빙('23. 3명→'24. 5명), 현지 거주 핵심전문가 (GPKOL) Pool('22년, 31개국 257명 → '23년, 280명) 구축
 - * 컨설팅(인허가·법인설립 등) 및 GMP 생산시설 고도화 비용 지원(10.5억원 8~10개 기업 지원)

②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 전략

- ◆ 코로나19로 급격히 성장한 체외진단기기 분야 수출 회복 지원
 - 기술경쟁력이 있는 주력분야(영상진단, 치과재료 등) 수출 활성화 추진
- ◆ 인공지능, 디지털 등 혁신 의료기기 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

① 체외진단기기 수출 회복 및 성장동력 유지

- (단기) 국제기구, 단체, 글로벌 펀드 등(FIND, RIGHT FUND, 다자개발은행 등)과 협력을 통한 국제 조달시장 참여 지원('23~)
 - * WHO에서 국제조달로 저소득국가 지원('21년 조달규모 약 16.8억달러, 우리나라는 1.3%)
- (중장기) ①신종감염병, 당뇨·암·심질환 등 만성, 중증질환 등 진단분야 확대 및 제품개발 지원(R&D)*, ②글로벌 인허가,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해 해외검체 확보 및 체외진단 전용 실증** 사업 추진('24~)
 - *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('20~'25) 사업 진행 중
 - ** (실증) 개발중이거나 개발된 의료기기의 안전성, 유효성 등을 의료현장에서 실제 사용자(의료진)가 직접 사용을 통해 제품을 검증하는 과정

< 체외진단기기 글로벌 실증 지원 >

검체 확보	실증과제수행
국제기구(WHO, FIND 등) *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질환의 검체 확보	국내 의료기관 *국내 의료기관을 국제공인 임상평가 센터로 지정

② 주력 품목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

- * (산업계 건의사항) 경쟁력 있는 국산 의료기기를 해외 구매자, 의료진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, 의학회 등 다양한 기회 지원이 필요
- (유통망 확보 지원) 주요 수출국가 협회·단체, 글로벌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국가 유통망 확보, 판로개척 등 지원('19~)
 - * (사례) 국내 S社は 로슈와 ODM 계약을 통해 전체매출의 약50%(1조원 이상) 달성
- (해외전시회 참가지원) 주요 국제전시회*에 국산의료기기 통합 전시관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제품 홍보 및 신규 계약 체결 등 지원
 - * 세계4대 전시회: Arab Health(UAE), CMEF(중국), Hospitalar(브라질), MEDICA(독일)
- (해외의료진 직접 연계)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수요자인 해외 의료진 연계를 위해 전문의학회 참가·개최 등 지원
 - * 의학회를 통해 국산의료기기 임상논문 발표, 시연, 술기 교육 지원 등 추진

③ 해외 거점센터 확대 및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

- (해외거점 확대) 해외 현지 거점센터를 확대하여 해당국가의 규제, 인허가 등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('13~)
 - * 의료기기 해외센터(진흥원): 미국, 인니, 베트남 → 유럽 등 추가 설치 검토
- (국제인증지원센터) 유럽(CE-MDR·IVDR)* 미국(FDA) 등 주요 수출 국가의 강화된 인허가 기준 등 대응을 위한 전주기 지원('22~)
 - * 유럽 의료기기 인증기준 강화(MDD→MDR, '21.5): 임상자료 제출, 시판 후 책임, 품질관리 투명성, 심사기관 자격 등 안전성 요구수준 강화, **미충족시 수출 중단** (고위험 의료기기는 '27.5월, 중저위험 의료기기는 '28.5월까지 적용 유예됨)
- 복지부, 산업부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부처 및 기관 중심의 범정부 협의체("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") 운영 및 지원방안 마련
- 국제인증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, 기술문서 작성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강화

④ 국산제품 신뢰성 확보 및 국제 공동연구·임상 지원

- (신뢰성 확보) 국산의료기기의 국내의료기관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여 제품의 사용실적 및 신뢰성 확보
 - 사용자(의료진)평가 사업, 교육훈련센터 운영 등 실증 및 성능개선, 임상근거 축적을 지원하고 국산의료기기 사용 인센티브 부여 검토*
 - *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실적이 수출에 가장 도움(산업계)이 되나 종합병원급 이상의 국산의료기기 사용률은 18.9%, 상급종합병원은 11.3% 수준에 불과
- (국제공동연구) 글로벌 주요시장인 미국, 일본 등 해당국 의료기관 및 기업과 공동연구·임상시험 지원 확대('22~)
 - *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기술상용화 지원사업('22~'26, 복지부): ('22) 국제공동연구 (8개 과제, 40억원), 해외임상시험(4개 과제 24억원) 지원 중

⑤ 혁신적 의료기기(디지털헬스케어, 소프트웨어 등) 해외진출 지원

- (개방형 혁신) 기술 이전·연구 협력·투자 연계 등을 위한 민관 합동 포럼 '메드텍 혁신 페어*(Medtech Innovation Fair)' 운영('24)
 - * 기술설명회를 통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, 투자유치·M&A 등 민간 파트너링 지원 등

3 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

- ◆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규제강화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
 - 아세안 및 중동 국가 등의 한류를 활용한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

1 중국 규제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

- 중국 수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정보 제공 확대* 및 평가보고서 작성 전문인력 양성 교육 확대** 추진

* ('11~'21) 연 20~30종 → ('22~'23) 연 400종 → ('24) 연 500종 제공

** '22. 시범사업 57명 → '23년 200명 → '24년 1,000명

- 국내 평가·검증*결과를 심사 없이 인정 및 규제정보 제공 강화 추진('23~)

* 안전성검증위원회 확대:('23)위원 5명, 연 30종 → ('24)위원 15명, 연 100종 검증

-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, 온라인 판매(수출) 지원

* 국내 뷰티 전시·박람회, 국내 쇼핑위크 등과 연계한 초청행사 기획 등('24~)

2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

- '국가·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 데이터' 구축 확대*('23~) 및 '소비자 맞춤형 제작 비스포크(Bespoke) 화장품' 기술 개발('23~)

* 제품 신용도 구축 기반이 되는 피실험군 규모 확대('23) 900명 → ('24) 1,200명)

- 피부취약층(민감피부, 노화, 탈모등) 대상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('23~)

3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

- 시장 규모가 크지만 수출실적은 낮은 미주·유럽과 한류 영향력이 큰 아세안·중동을 중심으로 마케팅 정보제공 및 홍보관·판매장* 운영 확대

* 외국인 대상 K-뷰티 체험·홍보관 추가(1개) 운영 및 해외 홍보 팝업부스·판매장 운영('23)

- K-문화 마케팅 사업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처 협업 확대

* (문체부·복지부) 해외 상설 홍보관(문체부 총괄) 공동운영 확대 추진('23 인니 → '24 1개소 추가 구축 예정)

* (KOTRA·복지부) KOTRA 해외마케팅 사업(한류박람회 등)에 화장품 참여 확대('23~)

- 화장품 주요 수출 채널인 온라인과 면세점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구매 통합정보 제공('23) 및 공항 K-뷰티 Zone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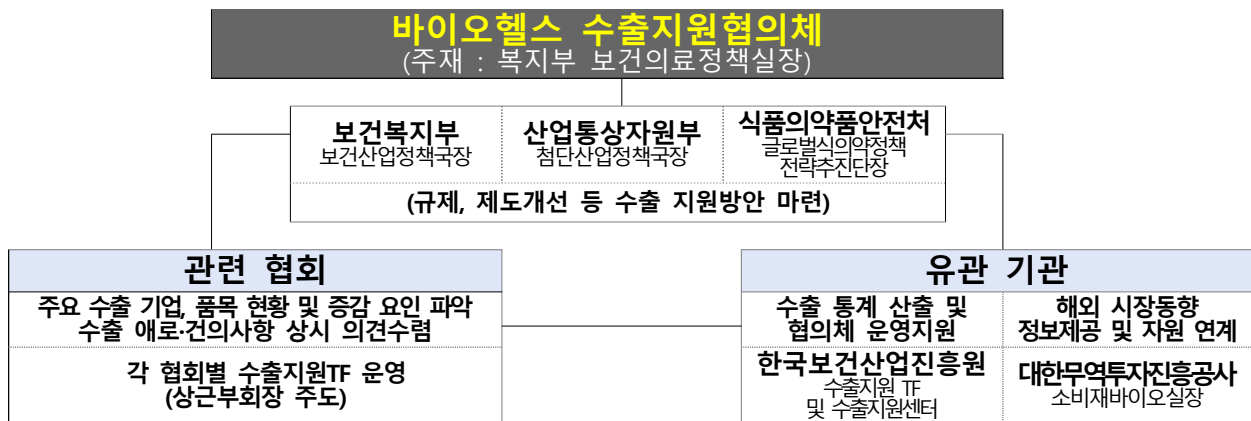
4 화장품 수출지원센터

- 쏠주기·맞춤형 종합컨설팅*을 제공하는 수출지원센터 구축·운영

* 중국 규제대응(인허가 등록 단축), 시장 다변화(신시장 개척), 강소기업 육성(브랜드 해외 런칭) 등

4 수출 지원 거버넌스 및 제도개선

- ① (수출지원 협의체) 복지부-산업부-식약처-협회-유관기관 등 민·관 협력을 통한 수출 총력 지원 체계 구축
- (목적) 주요 수출 기업·품목의 수출 현황과 증감 요인,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적시 필요한 지원책 발굴·지원
 - (구성) 복지부 수출투자책임관(보건의료정책실장)을 중심으로 산업부, 식약처, 관련 협회* 및 유관기관(보건산업진흥원,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, KOTRA)
- * (제약바이오) 제약바이오협회, 바이오의약품협회, 바이오협회, 의약품수출입협회, (의료기기) 의료기기산업협회, 의료기기협동조합, (화장품) 대한화장품협회 등 7개 협회
- (운영) 각 협회별 수출지원 TF(상근부회장 주재) 운영을 통해 파악한 수출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협의체에 보고·논의(매월)
- 제1차 수출지원협의체 회의 개최(3.17) 및 수출실적, 애로사항 등 점검



② 무역보험 우대

- (무역보험 우대) 의료기기기업 및 혁신 의료기기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 확대(1.5~2배) 및 보험료 할인(20% 할인) 추진
- 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위해 의료기기 단체 등에서 일괄보험 (단체보험) 가입 추진

Ⅲ. 향후계획

□ 향후 계획

- 「바이오헬스 수출활성화 전략 방안」의 차질없는 이행 점검
- 수출지원협의체 운영(매월)을 통해 월별 수출 실적 점검 및 일선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·협력을 통해 수출지원방안 발굴·개선
 - 협의체를 통해 파악한 기업 애로사항 중 타 부처 협조 필요 사항은 수출투자책임관회의 등을 통해 보고·건의 예정

IV. 세부 추진과제

세부 과제	소관 부처
전략1 :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	
1-1.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수준의 생산 역량 제고	복지부, 산업부 기재부
1-2. 우수한 신약 창출 및 글로벌 진출 지원	복지부, 과기부 산업부
1-3.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	복지부, 산업부 문체부, 중기부
1-4. 정부 간 협력 및 규제 대응 역량 제고	복지부, 산업부 기재부, 식약처
1-5. 수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	복지부, 기재부
전략2 : 의료기기 수출 활성화	
2-1. 체외진단기기 수출 회복 및 성장동력 유지	복지부, 산업부
2-2. 주력품목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지원	복지부, 기재부
2-3. 해외 거점센터 확대 및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	복지부, 산업부 식약처, 중기부
2-4. 국산제품 신뢰성 확보 및 국제 공동연구.임상 지원	복지부, 외교부 기재부
2-5. 혁신적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	복지부, 과기부 산업부, 외교부

세부 과제	소관 부처
전략3 : 화장품 수출 활성화	
3-1. 중국 규제강화 대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	복지부, 식약처
3-2. 수출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	복지부
3-3.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	복지부, 산업부 문체부, 중기부
3-4. 화장품 수출지원센터	복지부, 기재부
전략4 : 수출지원 거버넌스 및 인프라 구축	
4-1. 민·관 협력을 통한 수출 총력 지원 체계 구축	복지부, 산업부, 식약처
4-2. 무역보험 우대	복지부, 산업부